

# 인권의 세기를 향한 민중의 대하(大河)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8년 1월 26일

## 시민사회가 지지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지난해(2017년)는 평화와 군축을 둘러싼 전환기였습니다.

유엔이 교섭회의를 거쳐 드디어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했습니다.

7월에 채택한 이후 50개국 이상이 서명했는데 조약이 발효하면 생물무기나 화학무기에 이어 대량파괴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틀이 정비됩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전폐는 유엔을 창설한 이듬해인 1946년 1월, 유엔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후 희망이 없는 난제(一問)였는데 이번 조약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피폭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크게 지원해 실현했습니다.

그 공헌을 증명하듯 조약 제정을 목표로 계속 활동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2017년 12월) 수상식에서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에 이어 연설한 세쓰코 설로 여사는 히로시마에서 겪은 피폭체험을 들어 '인류는 핵무기와 공존할 수 없다' '핵무기는 필요악이 아닌 절대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핀 사무총장은 이달(2018년 1월) 일본을 찾아 참가학회 총본부도 방문했는데, 연설에 담긴 마음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ICAN과 함께 활동한 국제참가학회(SGI)의 신념과 겹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적대관계가 강해지면, 상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압도적인 파괴력을 사용해 소멸시켜도 상관없다, 이처럼 핵무기를 정당화하는 사상의 근거에는 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냉혹함이 깔려 있습니다.

스승인 도다 조세이(° ☒☒)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이 1957년 9월, 핵개발경쟁이 격화한 냉전이 한창일 때 '원수폭금지선언'으로 척결하려 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평화를 위한 억지(☒☒)'라는 명목 아래 핵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

내야 한다'며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근거에서 위협하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규탄했습니다.

그 유지를 이어받은 저는 반세기 전인 1968년 5월에 연 강연에서 당시 마지막 교섭 단계에 이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타결뿐 아니라 핵무기의 제조, 실험,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는 40년 전, 제1회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핵폐기와 핵군축을 위한 10개 항목을 제안하고 제2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한 1982년에도 거듭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3년 'SGI의 날' 기념제언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35년 동안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거듭 제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핵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가.

왜냐하면 도다 회장이 통찰했듯이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세계평화도,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도 '사상누각(☒☒“ )'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SGI가 핵폐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깊이 교류한 단체 중에 퍼그워시회의가 있습니다. 지난해(2017년)까지 퍼그워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안타 다나팔라 전 회장도 핵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윤리적 나침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윤리적 가치관과 현실주의적 정치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결코 맞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엔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윤리와 정책이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이 융합이 더 나은 평화와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 공헌했습니다.”

올해로 채택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바탕으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와 정책의 융합'을 이루는 열쇠인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에 뿌리를 둔 '인권'의 관점을 논하고자 합니다.

## 세계인권선언 초안에 담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 험프리 박사의 성장과정과 체험

첫 번째 기둥은, 인권의 기반은 '똑같은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2017년), 이주민과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대표 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주민 수는 2억 580 0만명에 달하고 난민 수도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부

담이나 위협으로만 여겨 외면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대표로 취임한 루이즈 아버 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그 지위와 상관없이 기본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역사가 말해주듯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다른 집단에 품은 멸시나 적대심이 수많은 참극을 일으킨 사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948년 12월, 유엔을 창설한 지 3년 뒤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교훈에서 결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현대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상기하고 함께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1993년 6월, 유엔의 초대 인권부장으로 세계인권선언 제정에 힘쓴 존 험프리 박사를 뵈는 적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등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깊이 남은 것은 박사가 직접 겪은 차별과 체험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기숙학교에 입학한 뒤 형, 누나와 떨어져 살았는데 그런 성장과정 때문에 괴로움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 달에 세계공황이 일어났는데 박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실업자들이 보여 무척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또 1930년대 후반 유럽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억압하는 파시즘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한사람 한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통감했습니다.

박사는 일전에 '세계인권선언 항목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넣길 잘했다'고 술회했습니다.

이러한 박사의 성장과정이나 체험이 세계인권선언 초안을 정리하는 데 틀림없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 박사가 20년 동안 역임한 유엔 인권부장을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그의 공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제게 강조했듯이, 어디까지나 세계인권선언이 어느 정도의 위신과 중요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많은 사람이 공동작업'으로 제정한 작자불명(☒☒☒☒)이라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박사에게서 복각본 초안을 받았을 때 손으로 쓴 글자 하나하나에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

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씨앗을 심은 사람의 기원’이 담겨 있다고 깊이 느꼈습니다.

그 심정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SGI는 ‘현대세계인권’전 등에서 복각본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1993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해외 첫 전시를 열었을 때 개막식에서 박사와 재회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미래로 전하겠다고 다짐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 인간성을 깊이 신뢰한 만델라 전 대통령

### 감옥에서 얻은 확신

한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1948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를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철폐를 목표로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입니다.

첫 만남은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8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이었습니다.

청년시절에 해방운동에 뛰어든 심정을 만델라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백 번이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백 번이나 굴욕을 당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을 수백 번이나 겪어 분노가, 반항심이, 동포를 가둔 제도와 싸우자는 정열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투옥으로 매우 가혹한 처사를 당해도 증오심이 그의 마음을 뒤덮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교도관이 이따금씩 보여준 ‘인간성의 단편’을 떠올리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인이 흑인을 마음 깊은 곳에서 증오할 리 없다고 느낀 만델라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말하는 아프리카언어를 배워 먼저 말을 건네면서 상대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난폭하고 강압적인 소장마저도 이임으로 교도소를 떠날 때는 만델라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인간미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해 소장이 보여준 냉혹한 언행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인간적 제도에 짓눌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27년 반, 실제 1만일에 이르는 옥중생활을 통해 ‘인간의 착함이란 가려 있으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깊이 확신한 만델라는 출옥 후 대통령에 당선해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많은 흑인이 백인 그룹에 살해되어 흑인들 사이에 분노가 소용돌이쳤을 때도 뻔한 말을 늘어놓으며 융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설 도중, 만델라 대통령은 갑자기 뒤쪽에 있는 백인 여성을 단상 앞으로 불러 웃음을 머금고 ‘교도소에서 병에 걸렸을 때 간호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신념을 말해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청중들의 분위기는 급변해 복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속박한 ‘비인간성이라는 쇠사슬’의 무게가 몸에 배어 있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 법화경에 묘사된 불경보살의 실천

우리가 신봉하는 불법(佛敎)에도 만델라 전 대통령이 얻은 ‘인간의 착함이란 가려 있으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확신과 공명하는 행동을 끝까지 관철한 보살이 있습니다.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정수인 법화경에 묘사된 불경보살의 행동입니다.

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는 절대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으로 경의를 표하는 예배행을 계속했습니다.

악구(惡口)를 듣고 돌을 맞아도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멈추지 않고 말을 건넸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무리 가혹한 처사를 당해도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불경보살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그들에게도 존극한 생명이 내재한다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만인존엄(萬人尊嚴)’을 설한 법화경에 바탕을 두고 13세기 일본에서 불법을 넓힌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법화경 정신이 이 행동에 응축해 있다고 보고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일이요, 교주 석존(釋尊)의 출세(出世)의 본회(本會)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어서 1174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인 석존의 출세의 본회가 ‘인간’으로서 보여준 행동에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석존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힌 것은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인간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몸져누운 환자를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도 두고 볼 수 없다며 몸을 씻기고 격려한 사

람이 석존이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터진 옷을 꿰매고 싶어 “바늘에 실을 꿰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말을 건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석존입니다.

또 의지하던 두 제자를 잃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신을 고무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석존이고, 여든이 넘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법(法)을 설한 사람이 석존입니다.

어둠과 같은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아무리 괴로워도 마음에 태양을 떠올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다, 이러한 인간 석존의 행동이라는 원류가 있기에 법화경의 ‘만인존엄’ 사상은 현대까지 생생하게 맥동해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를 ‘존극(尊- )한 중생’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부처는 인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불경보살처럼 자기 존엄을 자각하고 그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행동이 가장 존귀한 생명의 빛을 내뿜는 불계(佛界)라는 가르침이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대성인은 이 생명의 역동성을 “우리는 묘각(妙 )의 부모이며 부처는 우리의 소생(所生)의 자(子)이니라.”(어서 413쪽) 하고 설하셨습니다.

불법에는 고난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야말로 존엄의 빛으로 사회를 비추는 당체(當體)라는 사상이 맥동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조약이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누구나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권을 지키는 법적 제도 마련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도 험프리 박사나 만델라 전 대통령처럼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이 쓰라린 기억을 누구에게도 맛보게 하면 안 된다!’며 현실사회의 냉혹한 벽을 하나 또 하나 깨부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SGI 평화운동의 원류에 맥동하는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회장의 정신

### 혹독한 탄압 속에서 관철한 신념

우리 SGI가 펼치는 평화운동의 원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부정부와 곳곳이 싸운 마키구치 쓰네사부로(天宗三郎) ) 참가학회 초대 회장과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의 신념을 다한 투쟁에 있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20세기 초에 쓴 《인생지리학》에서 식민지 지배의 확산으로 세계의 많은 민중이 괴로워하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경쟁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자 난폭하고 잔학한 행위도 그다지 꺼리지 않는다.” 하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또 일본이 군국주의에 치우쳐 교육에도 영향을 깊게 미치는 상황에서 1930년 《창가교육학체계》를 세상에 발표해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가치창조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몸소 앞장서서 실천했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의 신념은, 국가총동원법<sup>1</sup>을 시행해 ‘멸사봉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종교를 모두 통제하던 때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거짓이다. 자신도 타인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실이다.” 하고 군부정부의 방침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상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기관지를 폐간하고 특고형사가 회합을 감시해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드높인 마키구치 회장은 결국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 혐의로 제자 도다 이사장(당시) 일행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교의 자유’ 등 모든 것을 빼앗기고 투옥되면서도 마키구치 회장은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옥중에서 일흔셋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쟁취하는 인간은 팔짱을 낀 방관자들이 아니라 ‘암담한 때라도 진실을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우롱당해도 굴욕당해도 패배를 맛보아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 보면 마키구치 회장의 신념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처럼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옥중투쟁을 함께 관철한 도다 제2대 회장에게 엄연히 계승되었습니다.

냉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다 회장의 마음을 가득 메운 것은 ‘전쟁의 승패, 정책, 사상의 옳고 그름’과 같은 국제정치 차원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여의고 잃어버린 아이나 부모를 찾아 헤매는 민중이 많지 않을까’를 우려해 ‘백성이 갈 곳이 없다. 낙토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은 마키구치 회장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민중에 향해 있었습니다.

1956년에 헝가리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경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비통한 처지에 놓이는 것만은 살피겠다’ ‘그저 하루빨리 지상에서 비참한 일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며 민중의 행동으로 시대변혁의 파도를 일으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

#### <sup>1</sup> 국가총동원법

1938년 3월에 제정한 법률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 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국민징용령과 생활필수물자통제령 등 많은 칙령을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국민 생활을 전면적으로 구속했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폐지됐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가의 민중도 희생시키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는 ‘지구민족주의’를 제창한 도다 회장은 민중의 생존권을 근거에서 위협하는 핵무기 문제야말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다 회장은 서거 7개월 전에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고 당시 청년인 우리에게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향한 길을 개척하라고 의탁했습니다.

## 누구도 비참을 겪지 않게 하겠다

###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곳곳이 지킨다

이렇듯 두 선사는 국가 간 긴장 해소와 전쟁 방지에 그치지 않고 민중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곳곳이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세계평화를 추구했습니다.

SGI가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힘쓰면서 ‘생명권’을 지키는 인권적 접근을 중요하게 본 이유도 이러한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회장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조약이 군축과 관련된 것이면서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품고 있다는 데 깊은 의의를 느낍니다.

조약의 가장 큰 특색은 핵무기를 금지하는 이유로서 ‘모든 인류의 안전’에 대한 위협성을 들고 피해를 입은 ‘인간’의 관점을 조약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과 조약에 관계하는 주체로서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유엔헌장과 조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주어를 내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서도 자신의 피폭체험을 들어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거듭 주장한 무게 있는 행동을 남기기 위해 ‘피폭자’라는 문자를 전문에 새겼습니다.

금지조약 교섭회의에서 시민사회의 대표는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대표가 시민사회는 ‘존경스러운 맨 앞줄’이었다고 말했듯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와 핵 피해를 입은 세계의 피폭자를 비롯해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행동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금지조약을 성립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SGI도 그 연대와 함께하면서 ICAN과 공동작업으로 전시를 열어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의식을 계발하고 유엔에 작업문서를 제출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의 제정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

니다.

평화도 인권도 모두 한번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비참을 누구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정신적 법원(α⊠)이 되어 시민사회가 행동의 고리를 크게 넓힐 때 비로소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법률이나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인간을 갈라놓은 벽을 부수고 만인존엄을 설한 석존

### 나라와 나라를 잇는 인프라 구축

두 번째 기둥은, ‘분단을 이겨내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이주민과 난민이 급증하면서 입국관리의 강화와 자원의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등 국경을 둘러싼 문제가 다양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많은 나라를 직통으로 잇는 철도를 비롯해 국경을 뛰어넘은 전력공급망과 인터넷 해저 케이블 부설 등 공통 인프라를 널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설한 해저 케이블은 약 75만 킬로미터이고 철도는 약 120만 킬로미터인데 그 길이는 세계 국경선의 총계인 25만 킬로미터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3조 달러로 한해 동안 들어가는 전 세계 방위비(1조 7500억달러)보다 많고 앞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입각해 지정학(⊠⊠~)의 재검토를 제창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파라그 카나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의 전체도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국경선은 사람이 창조해 지리를 반영한 가장 뛰어난 수단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오늘날 진실은 그 반대다. 국경선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할 뿐 다른 선이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

공통 인프라 구축은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연의 지리와 정치적 지리가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선이라는 ‘정치적 지리’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공통 인프라가 완수하는 역할에 주목해 ‘기능적 지리’

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한 카나 연구원의 시도에서 저는 앞서 언급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인생지리학》과 통하는 시선을 느낍니다.

지리적 인식이 인간과 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 마키구치 회장은 행동의 기축을 ‘인도적 경쟁’에 둘 것, 다시 말해 ‘그 목적을 이기주의에만 두지 말고 자기와 더불어 남의 생활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국경선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해도 국경을 초월해 연결한 공통 인프라의 선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풍요로워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키구치 회장이 제창한 ‘인도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키구치 회장이 주장한 사상의 근간에는 ‘가치는 관계성에서 생긴다’는 철학이 있는데 저는 서로 다른 존재를 연결하는 유대를 넓히는 일이 인권을 둘러싼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델라 전 대통령이 백인 교도관이나 간호사들과 개인적인 유대를 맺어 인간성을 깊이 확신한 일이 출옥 후 정치활동의 초석이 되었듯이 여러 차이가 있어도 각자의 관계를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계 각지로 퍼지는 배타주의의 움직임

‘만인존엄’을 설한 석존이 늘 유의하라고 당부한 것도 말의 고정관념이 초래하는 위험성이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한다.” 하고 인간의 존엄은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에 ‘염리단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와 인간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갈라버리고 가장 존귀한 생명상태(불계)를 얻으려면 나머지 생명상태(구계)를 모두 마다하고 끊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리켜 그것을 훈계한 말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점에 입각해 “이승(☒☒)을 영불성불(☒☒+ ☒)이라 설하심은 이승 일인만이 한탄할 일이 아니었으며 우리도 같은 한탄이었다고 알았느니라.”(어서 522쪽)고 하시며 특정한 사람들의 존재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칠 뿐 아니라 자기 존엄의 토대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생명론에 입각한 관점인데 현대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도 인간의 존엄에 장벽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멀리하고 관계 맺기를 꺼리는 배타주의가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배타주의에 관해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종교 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관용(☹☹☹)과 싸워야 한다는 결의안과 외국인 혐오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관한 추가의정서 초안을 만들자는 결의안입니다.

2년 전 유엔에서 채택한 뉴욕선언<sup>2</sup>에서도 ‘난민 또는 이주민을 악마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관여한 전 인류에 대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근거에서 해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속한 집단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불안이나 당혹감을 느끼는 현상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타주의로 치우쳐 헤이트 스피치처럼 증오심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면 인권침해입니다.

## 타인이 앓는 마음의 병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삶을

### 필터 버블이 일으키는 문제

특히 최근 정보화사회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과 더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갖는 일체감만 증폭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일명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이용자의 경향을 반영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정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어느새 필터링된 특정 정보에 둘러싸여 거품망에 갇힌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각한 점은 사회문제를 인식할 때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걱정되는 사회문제가 있어도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 주장이나 해설을 실은 웹사이트와 SNS의 내용만 보

---

<sup>2</sup> 뉴욕선언

2016년 9월, 뉴욕 유엔본부가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이다.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비롯해 어린이 교육기회 확보와 난민 수용국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난민과 이주민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새로운 규범이 되는 글로벌 콤팩트를 2018년 말까지 채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은 처음부터 멀리하게 되고 좀처럼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잘 아는 엘리 프레이저 씨는 ‘정보의 공유가 체험의 공유를 낳는 시대에서 필터 버블은 우리를 갈라놓는 원심력이 된다’고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적절히 판단하려면 문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살펴야 하는데 ‘필터 버블로는 360도는커녕 자칫하다가는 1도밖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좁은 시야가 초래하는 악영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집단이 자신들은 차별당하지 않는 현실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들에게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1993년 1월, ‘공민권운동의 어머니’로 불리는 로자 파크스 여사와 만났을 때 여사가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슬픈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법률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활개 치고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현실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쓰라려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버스보이콧운동은 파크스 여사가 보여준 ‘불의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는 자세’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기에 큰 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요.

### 역사적 교훈을 청년에게 말해준다

일본에도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웃 나라와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제가 오랫동안 깊이 교류하면서 우의를 맺은 분 중에 한국의 이수성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의 아버지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대에 판사로 일하셨는데 한복을 입고 출근하고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판사직에서 쫓겨나고, 변호사로서 일하려고 해도 개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성 전 총리가 해주신 이 이야기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무도한 취급을 당한 이웃 나라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을 일본 청년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저는 늘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2017년) 10월, 소카(☒)대학교에서 강연한 이수성 전 총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 또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에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자칫하면 차별은 많은 사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은 일상에서 늘 겪는 현실입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무의식의 벽’에 눈을 돌리고 나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SGI가 인권교육을 추진하며 힘을 쏟는 까닭도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를 통한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 회복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다원적인 사회’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의식계발입니다.

지금까지 SGI는 1995년에 시작한 ‘유엔 인권교육의 10년’을 지원하고 아울러 그러한 국제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부터 유엔이 새롭게 시작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추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많은 단체와 협력하면서 ‘인권교육 및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 채택을 시민사회 측에서 후원해 2011년 채택 이후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인권교육에 관한 영화 ‘존엄의 길’을 제작해 상영할 뿐 아니라 지난해(2017년) 3월에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한 새로운 전시 ‘변혁의 한 걸음 ☒ 인권교육의 힘’을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전시에서 소개하는 사례 중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의 인권연수를 계기로 넓혀진 사회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프로젝트를 도입한 결과 이주민에게 차갑게 대하는 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사람’과 ‘행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사람’은 보호하되 위법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경찰의 책무라고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주민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 다가오면 불안했는데 어느 날 ‘청년을 위한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경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어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권에 관한 연수를 도입한 뒤로 경찰관의 의식이 바뀌고 이주민들의 불안도 점차 해소되어 시민들도 경찰을 높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 ‘인타라망(窓窓窓窓)’의 비유

이 사례가 상징하듯이 인권교육이나 인권연수의 의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은 5년마다 중점 대상을 ①초·중등교육 ②고등교육과 교육자, 공무원 등 ③언론과 언론인으로 정하고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제4단계는 2020년에 시작합니다. 저는 그 중점 대상을 ‘청년’으로 정하자고 제창합니다.

청년은 필터 버블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인권교육에서 배운 경험을 주위에 말하고 발신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유대를 넓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핵무기 금지를 추구하는 ICAN 활동에서 중핵을 짚어준 사람들도 20대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러한 세대가 형성되면 틀림없이 세계의 흐름을 분단에서 공생으로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필터 버블이나 ‘무의식의 벽’에 갇히면 다른 사람이 발하는 인간성의 빛을 보지 못하고 본디 자신에게 내재한 인간성의 빛도 흐려져 주위 사람에게 보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권교육에는 속성이나 처지의 차이가 만든 자타를 가로막은 벽을 허물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인간성의 빛’을 밝게 빛낼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힘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인타라망(窓窓窓窓, 제석천의 궁전을 장식하는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장대한 그물의 매듭마다 달려 있는 보석이 서로 빛을 반사해 더욱 밝은 빛을 발하면서 그물 전체를 강엄하게 장식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저는 인권교육이 여는 사회의 비전을 보는 기분입니다.

유엔선언이 인권교육을 통해 주장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다원적인 사회’는 ‘인간성의 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유대를 거듭 엮어낼 때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을까요.

## 소극적 관용을 뛰어넘어 ‘인권문화’ 건설에 도전!

### 유엔 활동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

세 번째 기둥은, 인권문화의 유대는 ‘기쁨의 공유’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2017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12월 10일에 맞춰 선언을 처음 발표한 파리의 샤요궁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자이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결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일은 자기 인권과 미래 세대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관철하는 ‘힘을 모아 함께 인권을 지키다’는 문제의식은 유엔의 다른 캠페인에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투게더(Together)’와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히포시(HeForShe) 활동에서도 이름이 상징하듯 차이를 뛰어넘어 행동의 연대를 넓히는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 관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관용의 경우 공생이라고 해도 같은 지역에서 살기를 받아들인다거나 법률과 규칙에 따른다는 표면적인 관용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 관용으로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 배타주의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사람 한사람이 의식을 변혁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함께 만드는 인권문화 활동을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불법에 “회(“ )란 자타(☒☒) 공(☒)히 기뻐하는 것이니라.”(어서 761쪽)는 말이 있는데 공생사회를 구축하는 원천은 한사람 한사람이 존엄성을 빛내는 모습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의 자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화경에는 ‘만인존엄’을 설한 석존의 가르침에 감동한 제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서원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주변에는 ‘심대환희(☒” , ” )’와 ‘환희용약( , ” ☒☒)’이라는 말이 곳곳에 씌어 있듯이 기쁨의 유대가 넓혀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만인존엄’을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SGI의 민중운동을 움직이는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기쁨의 공유’입니다.

국가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 맞닥뜨린 과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 존엄성의 빛을 발하는 벗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원천입니다.

##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은 기쁨을 공유하는 데서 생긴다

###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 공민권운동의 정신

‘기쁨의 공유’라고 하면 이전에 역사학자 빈센트 하딩 박사에게서 들은 미국 공민권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딩 박사는 대학원생 시절, 마틴 루터 킹 박사 집을 방문한 일을 계기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버스보이콧운동을 계기로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한편, 남부를 중심으로 흑인 대학생이 등교를 정지당하거나 흑인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잇달아 거부당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던 하딩 박사가 흑인은 물론 백인 기독교도와 협력하는 활동에 참여하자 동료들 사이에 이런 의문이 일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흑인과 백인이 형제자매처럼 함께 사는 현상을 위법으로 여기는 위험한 남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심각한 문제에 휘말려도 신념을 관철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박사 일행은 ‘그렇다면 남부로 가자’고 결단하고 흑인 두 사람과 백인 세 사람이 조를 짜서 차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아칸소주에서는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들을 도운 중심자 집에 극악무도한 협박이 쏟아지는 실태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일삼는 미시시피주를 지나 앨라배마주에 도착했을 때 킹 박사는 며칠 전 칼에 찔려 몽고메리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레타 여사는 하딩 박사 일행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며 킹 박사와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하딩 박사는 당시 만남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고메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킹 박사는 우리가 흑인 두 사람과 백인 세 사람으로 조를 짜서 ‘형제’처럼 남부여행을 시도한 데 깊이 감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킹 박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단순히 흑인을 위해 법적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뛰어넘어 그가 ‘사랑 가득한 공동체’라고 표현한 ‘같은 인간으로서 맺는 근본적인 유대’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킹 박사로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법률 제정을 후원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민권법과 같은 법률의 정비는 사회에 만연하는 차별과 억압을 저지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킹 박사의 시선은 뿌리 깊은 편견과 감정의 응어리를 없애는 노력 그리고 하딩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흑인과 백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통의 선(≠)’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찾아낼 수 있는 ‘미국’을 만드는 데에 향해 있었습니다.

공민권운동이 큰 파동을 일으켜 두 사람이 만나고 5년 뒤인 1963년 8월에 워싱턴 대행진<sup>3</sup>을 실현했을 때는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킹 박사는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워싱턴에 여행 온 25만명 중에는 고위 관료와 명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자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이념에 도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자 당당한 태도로 참여한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회에 일으킨 변화 하나하나에 대한 ‘때려야 떨 수 없는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킹 박사는 ‘여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당 일본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날마다 온갖 고생을 다했기에 많은 사람의 가슴에 만감이 밀려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인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킹 박사가 당시 기자의 시각에서 주목한 ‘나라가 평화로울 때 일어난 어떤 문제보다 미국의 3대종교 신앙의 거리를 좁혔다’는 역사적 연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 여덟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 발표

### <sup>3</sup> 워싱턴 대행진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목표로 개최한 대규모 집회다. 이 해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지 100주년에 해당하고 마틴 루터 킹 박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한 유명한 연설을 남긴 해다. 이 운동이 고조되면서 1964년 7월, 인종에 따른 고용차별과 분리교육 등을 금지하는 공민권법을 제정했다.

주제가 바뀌지만, SGI가 핵무기 금지를 목표로 다양한 신앙단체와 협력해 종교커뮤니티로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오로지 민중 연대로 시대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연대를 구축한 출발점은 2014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종교 간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해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 핵무기 문제를 논의한 끝에 14개 단체 종교인들이 서명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그해 12월 빈에서 개최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를 비롯해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와 2016년 핵군축에 관한 유엔 개방형작업반(OEWG)회의 그리고 지난해(2017년) 개최한 핵무기금지조약 교섭회의 등 중요한 마디마다 종교커뮤니티로서 참석해 여덟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명감을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유대를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을 모아 도전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매우 기쁩니다.

SGI는 지난해(2017년) 11월, 바티칸에서 개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둘러싼 국제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 사용뿐 아니라 핵무기 보유를 명확히 비난하고 핵무기는 안전보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낼 뿐이고 ‘윤리적 연대’가 바로 평화적인 공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무기금지조약 교섭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들어 ‘건전한 사실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 인류의 역사를 여는 민중의 연대를!

돌이켜보면 저는 50년 전 킹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 달에 핵무기 금지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킹 박사가 마지막에 강연한 구절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박사는 강연에서 ‘만약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어느 시대에 살고 싶은지’ 자문한 뒤 르네상스 시대나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기로 결단한 때 등 많은 역사적 사건을 보고 싶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로 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기묘(- ☒)하게 느껴지시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계는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병 들고 지방은 괴로워하는 등 모든 곳이 혼란스럽습니다. 확실히 이 발언은 기묘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두울수록 별은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지금이 바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고자 애쓴 문제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유엔과 시민사회가 협동해 인권문화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세계 민중의 ‘생명권’을 지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라는 중요한 국면을 앞둔 이때, 킹 박사의 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앞에는 인류사에 획을 그을 도전의 무대가 크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에 성공하는 원동력은 민중의 연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인류의 ‘생존권’을 지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이어서 지금까지 논한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핵무기 문제입니다.

지난해(2017년) 7월, 유엔이 122개국의 찬성을 얻어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비롯해 제조와 보유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일찍이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이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위반한다고 보면서도 국가의 존망이 달린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합법인지 위법인지 확실히 결론지을 수 없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핵무기금지조약은 그런 경우를 포함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지난달(2017년 12월)에도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 맞춰 유엔이 금지조약의 두 번째 서명식을 개최하는 등 조약 발효를 위해 거듭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한때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비핵화를 과감하게 선택한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약속한 이듬해(1990년)부터 핵무기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 NPT에 가맹해 1996년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핵지대 설립에 도화선이 된 중남미 트라텔롤코조약 전문에도 ‘핵전쟁의 참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문장에 이어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에 바탕을 둔 항구평화를 내걸었듯이 ‘비핵의 선택’과 ‘인권의 이념’은 불가분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의 이념은 국가 간 차이를 불문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이념을 추구한다면 핵군비 확산이 계속될 리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정세처럼 핵무기를 노골적인 ‘위협 수단’으로 삼는 양상이 다시금 강해져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근년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sup>4</sup>의 준수를 둘러싸고 대립해 걱정입니다.

## 국제법의 역사가 구축한 것

핵역지 정책의 뼈대는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에 있는데 그 안에 숨은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타인을 압도하는 자유의지’로서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떠오릅니다.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유는 타인과 교류하면서 빛을 발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최고의 기술’로 받아들인 데 반해, 근대 이후에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여되고 자기의지에만 바탕을 둔 ‘선택적 자유’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유는 이념이 행위에서 힘을 사용하는 의사로 이동하고 행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자유에서 선택의 자유로 이동한 결과, 그 이념은 앞서 말한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독립하고 더욱이 결국에는 타인을 억압하는 자유의지의 이상(☒☒) 즉 주권이 되었다.”

---

### <sup>4</sup>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

1987년 12월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의 전면 폐기를 위한 조약이다. 1991년에 중거리핵전력 폐기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 검증조치를 실시한 뒤, 양쪽 다 위반하지 않아 조약 이행을 종료했다. 그러나 최근 INF의 배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핵군비 확대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렌트는 이 고찰에서 자유와 주권의 관계를 논했는데 괴멸적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로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방침은 ‘타인을 압도하는 자유의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국제법의 역사는 국가 간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확히 긋고 공통 규범을 세우는 도전의 반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계속된 전란으로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근대국제법의 초석을 닦은 흐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적도 변함없이 같은 인간이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19세기 이후 전시(☞☞)의 금지사항을 정하는 국제인도법 형성으로 이어지고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쳐 유엔헌장을 통해 ‘무력을 이용한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해 조약으로 대인지뢰나 집속탄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로 규범 지으면서 보유를 원하는 국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17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을 발효한 지 20주년이었는데 체결국이 192개국에 이르고 90퍼센트가 넘는 화학무기를 폐기했습니다.

국제규범은 일단 제대로만 세우면 국가의 방향뿐 아니라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ICAN의 핀 사무총장도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화학무기 보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신경계를 손상하는 사린가스 사용을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는 허용하겠다는 나라도 없습니다. 적국에 페스트균과 폴리오 바이러스를 살포할 권리를 공언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핵무기는 조약 채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군사력을 과시하며 핵무기 사용을 둘러싸고 위험한 발언이 오가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혼미해지는 때 일수록 핵억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시금 진지하게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냉전시대가 말해주는 교훈 공포심을 이용한 억지의 위험성

### 호루쇼프의 미국 방문

여기서 저는 핵무기 사용을 둘러싸고 위험한 상황이 끊이지 않던 냉전시대의 교훈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소련 정상으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한 흐루쇼프 총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를 성공한 지 2년 뒤인 1959년 9월이었습니다.

흐루쇼프는 ‘가까운 시일 안에 핵전쟁을 일으킬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어느 곳에서나 정치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시민과 만나는 일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의견은 대립했지만 미국과 일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귀국했는데 이듬해 미국 정찰기인 U2가 소련 영공 내로 들어와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1961년 베를린 위기에 이어 1962년에는 쿠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쿠바 위기는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쇼프 총리가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멈추었기에 최악의 사태를 면했는데 다큐멘터리 방송 마지막에 당시 흐루쇼프 총리의 심정을 짐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핵전쟁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잠시나마 미국 시민과 만난 그리운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에서 추측한 이야기지만 핵 공격을 단행하면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고 만다는 현실은 제가 흐루쇼프 총리의 후임 코시긴 총리와 솔직하게 대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974년 9월, 코시긴 총리와 만났을 때 소련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핵전쟁과 같은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석 달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공호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방공호뿐 아니라 중학생들도 운동장에 지하실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코시긴 총리는 뜻을 굳힌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마음도, 고립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다시 중국을 방문했는데, 핵보유국 지도자는 핵위협에 놓인 수많은 민중과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 핵전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썰기

한편 소련과 대립한 미국에서도 군사연습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연습에 참관했을 때 소련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괴멸될 미국의 도시를 지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간이 1분씩 흐를 때마다 붉은 점이 점점 늘어나 ‘대통령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전에 지도는 이미 붉은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괴멸적 결말에 충격을 받은 레이건 대통령은 머그잔을 손에 꼭 쥐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체험을 가슴에 새기고 소련과 대화를 계속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정상회담에서 INF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지도에는 ‘붉은 점’의 증가만으로 끝날지 몰라도 실제 핵공격과 응수가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존귀한 목숨을 잃고 인간의 삶이 파괴될까요.

SGI가 ICAN과 협력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전을 제작해 강조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마음속에 다른 것을 떠올려도 핵무기가 그 ‘소중한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핵시대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연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억지 정책이 쿠바 위기에서 양국이 도발로 치닫는 상황을 직전까지 막지 못했듯이 ‘공포의 균형’은 오해와 억측으로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다는 사실을 핵보유국과 핵의존국 지도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2002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도 양국을 잠재운 배경에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재에 들어간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파키스탄의 정상에게 전화해 ‘당신도 나도 핵은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이후 이런 무기를 처음 사용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가, 다시 한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진을 보겠는가’ 하고 말하자 파키스탄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인도 측도 중재에 같은 반응을 보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역사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핵전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쐈기는 ‘공포의 균형’을 이용한 억지라기보다 전혀 다른 요소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는 적대국에 문호를 닫지 않고 다각도에서 대화를 모색해 의사소통의 회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참극처럼 수많은 민중이 희생될 비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은 조약 참가를 검토하고 앞장서서 정책전환을!

### 처지를 뛰어넘은 건설적 논의를

올해는 4월부터 5월에 걸쳐 NPT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5월에 핵군축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유엔이 개최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이후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이 함께 실시하는 첫 토의이기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의에서 2020년에 개최하는 NPT재검토회의까지 각국이 달성할 수 있는 핵군축 노력을 논하고 아울러 핵무기금지조약의 7개 항목 중 향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양 금지’나 ‘새로운 핵보유로 이어지는 원조 금지’에는 NPT와 관련 있는 핵보유국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 핵의존국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금지’나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조, 장려, 권유의 금지’가 자국의 안전보장정책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hard law)’과 유엔총회 결의안이나 국제적인 선언 등과 같은 ‘연성법(soft law)’이 합쳐져 서로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높여왔습니다. 군축 분야에서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처럼 조약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 개별로 협약을 맺어 국제감시제도에 협력하는 길을 연 사례가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도 서명이나 비준 확대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경성법’과 ‘연성법’의 조합처럼 서명이나 비준이 당장 어려운 경우라도 선언이나 성명과 같은 형태로 각국이 실시할 수 있는 항목부터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NPT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약을 채택하게 한 촉진제가 된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은 2010년에 개최한 NPT재검토회의에서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을 포함한 모든 체약국이 내놓은 공통의견일 뿐 아니라 핵무기금지조약에는 NPT 제6조가 정한 핵군축 의무를 구체화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의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마음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2017년) 11월, 협조적 안전보장을 주제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계속 정체상태인 핵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NPT와 핵무기금지조약의 두 구조를 보완할 점을 토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2018년 2월) 도쿄에서 여는 국제회의에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의 전문가가 참석해 북한 정세나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핵군축 정체와 더불어 핵무기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확산방지 면에서도 심각한 과제를 떠안고 있는 지금, 'NPT의 기반 강화'와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른 규범의 명확화'라는 두 가지 접근이 상승효과를 내 핵무기로 인한 참극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을 궤도를 깔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다음 NPT재검토회의까지 핵군축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핵의존국 중 앞장서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파월 미국무장관의 말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피폭국인 일본은 '1945년 8월 이후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용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도의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지조약의 근거에는 어떤 나라도 핵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나라도 핵공격을 단행하면 안 된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간절한 마음이 맥동합니다. 피폭자인 세쓰코 설로 여사도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계속 말하는 노력은 잘못된 일도 헛된 일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2017년) 다음 NPT재검토회의를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모든 접근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는데 일본이 가장 기반으로 삼아야 할 점은 '똑같은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게 하겠다'는 피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핵폐기를 위한 새로운 '민중행동 10년'

### 시민사회가 평화, 군축교육을 추진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해 또 하나, 시민사회의 연대를 원동력으로 삼아 조약의 보편성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의의는 어떤 예외도 없이 핵무기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덧붙여 조약 실시를 지지하는 주체로서 국가나 국제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약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채택국회의나 6년마다 실시하는 검토회의에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과 함께 비정부기구(NGO)도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계의 피폭자를 비롯해 조약 채택에 큰 역할을 한 시민사회를 위한 것이자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할 '전 지구적 공동작업'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조약 전문은 평화와 군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우리 SGI가 유엔의 교섭회의에 제출한 작업문서와 교섭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호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무기 사용이 불러올, 인도주의 측면에서 괴멸적 결말을 불러올 지식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하고 유지하려면 평화와 군축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국에 금지조약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GI로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조기발효와 보편화 촉진을 목표로 올해부터 새롭게 제2기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을 개시할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SGI는 지난해(2017년)까지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유엔제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발표 50주년을 기해 2007년 9월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ICAN과 협력하여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여성들의 피폭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증언 영상 DVD(다섯 개 언어판)를 제작해 핵무기와 전쟁의 비참함을 외치고 앞에서 소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연대'전을 19개 국가 81개 도시에서 개최했습니다.

또 2010년에 개최한 NPT재검토회의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을 요구하는 227만명의 서명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4년에는 핵무기폐기운동에 협력해 512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단체와 연계해 2015년에 히로시마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세계청년서밋'을 개최하고 아울러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나 유엔에서 여는 핵무기를 둘러싼 일련의 토의와 교섭회의에 참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논의의 쟁점에 놓고 지지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을 교섭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꿈꾸는 많은 민중의 생각에 입각해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전면 금지

를 규정하는 조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 ‘비핵’이라는 민의를 세계지도에 나타내다

지금까지 ‘민중행동 10년’의 최대 초점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중행동 10년’ 제2기에는 평화와 군축교육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을 쏟으면서 핵무기금지조약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금지조약을 기반으로 세계의 실정을 크게 바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민중의 의견을 결집해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2개국·지역에서 7500개를 웃도는 도시가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에 가맹할 정도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의견은 핵보유국이나 핵의존국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ICAN의 활동에 찬동하는 NGO도 세계 468개 단체에 달합니다.

저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보편성을 높이려면 시민사회가 더 많은 국가가 조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시민사회의 지원을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추진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ICAN이나 평화시장회의 등 많은 단체와 협력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각국의 지자체 소재지를 유엔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한 세계지도를 제작하거나 여러 NGO가 조약을 지지하는 의견을 모아 폭넓게 소개하고 유엔과 군축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과 여성 그리고 과학계나 종교계 등 다각도로 연대를 넓혀 각국의 조약 참가를 주장하고 아울러 조약이 발효한 뒤에는 시민사회로서 비체약국도 체약국 모임에 참관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앞에서 저는 냉전시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지도가 붉게 변한 모습을 언급했는데 ‘우리 세계의 민중은 비도한 핵공격에 대한 응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전 세계 민의(民意)의 중대함을 명확히 나타내 전 세계를 비핵으로 이끌도록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피폭자 세쓰코 설로 여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열세 살 소녀 시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혔지만, 빛을 따라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빛은 핵무기금지조약입니다.” “어떤 장애에 부딪혀도 우리는 계속 활동해 필사적으로 이 빛을 나눠야 합니다. 이 빛은 단 하나뿐인 존귀한 세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정열이자 다짐입니다.”

ICAN과 평화시장회의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넓혀 핵무기 폐기를 희구하는 세계적 민의의 크기를 가시화하면 그 민의의 중대함이 이윽고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의 정책전환

을 촉구하고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들의 교육기회 확보가 급선무

### 유엔이 채택하려는 국제적인 두 가지 방안

두 번째 주제는 인권문제입니다.

먼저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엔은 현재 글로벌 콤팩트라는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국제적인 두 가지 방안을 올해 안에 채택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콤팩트에서 모든 항목에 통하는 원칙으로 인권을 내걸고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의 교육기회 확보’를 각국이 공통협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난민과 국내 피난민은 전 세계 6560만명에 달하고 난민 중 절반은 어린이입니다.

이주민 어린이도 대부분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영향 받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보호자와 떨어져 각지를 유랑하는 어린이들인데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이 지난해(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그 수는 약 다섯 배나 증가해 80개국에서 약 30만명에 이릅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제목처럼 난민이나 이주민이라는 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권리와 존엄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어린이권리조약의 근본 이념이 아닐까요.

2년 전(2016년)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가 합의한 ‘뉴욕선언’도 어린이를 둘러싼 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선언은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늘 고려하며 그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모든 어린이가 도착한 지 수개월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결의안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결의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두 가지 글로벌 콤팩트로 각국이 교육기회의 확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이 적은 나라는 수용이 많은 나라를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선언이 강조한 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심각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틀림없이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시리아에서 도망친 수영선수의 말

지난해(2017년) 유엔 난민기구(UNH CR) 친선대사로 취임한 시리아 출신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으로 굶주림을 채워 난민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르디니는 내전이 일어난 모국을 탈출해 바다로 터키를 지나 그리스로 도망치던 중 보트가 고장 나자 언니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몇 시간이나 헤엄쳐서 보트를 밀어 2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후 독일에 정착한 마르디니는 수영연습을 거듭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난민선수단으로 출전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르디니는 ‘가혹한 상황을 겪은 난민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기회만 있다면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기회가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교육으로 밝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수용 지역의 어린이에게도 넓혀져 ‘공생하는 마음’을 기르는 힘찬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에 관해 ICAN의 핀 사무총장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이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일곱 살 때 발칸반도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매우 힘들게 생활한 듯 했습니다.”

“부모가 가뭄을 피해 소말리아에서 왔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부모들을 만나니 외국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위험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이처럼 핀 사무총장은 모국 스웨덴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난민이나 이주민 어린이들과 함께 산 경험이 훗날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각국의 교육제도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린이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가족을 포함해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깊이 교류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학교 이외에도 난민 어린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비형식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고 SGI도 다른

단체와 협력해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는 연대를 넓힐 생각입니다.

## 삶의 보람과 존엄을 지원하는 고령자 인권조약 제정

###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에 9억명

이어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초미의 과제로서 고령자의 인권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 9억명이고 2030년에는 14억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변하는 사회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커다란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2017년) 7월, 유엔이 개최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작업반(OEWG)’도 이 주제를 둘러싸고 논의했습니다.

논의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써어 있는데도 고령자는 생산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낮아 경제사회나 젊은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인권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전제 아래 ‘고령자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디 고령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70년 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기 바로 전에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각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1982년 빈에서 개최한 제1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1991년에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으로 정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독립’을 비롯해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돌봄’ 그리고 차별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존엄’을 고령자 인권의 핵심으로 삼아도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로마클럽 공동회장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박사와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을 갖추면 사회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해 일뿐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실감한다면 그것이 기쁨과 충실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원칙 중 나머지 ‘참여’와 ‘자아실현’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존엄에서는 물론 ‘주위에서 존중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도 없이 소중한 마음의 의처’로 받아들인다면 존엄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유대는 병에 걸리거나 간호가 필요한 처지가 되어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존엄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창가학회도 3년 전부터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의 문화와 희망’전을 개최했습니다.

자칫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사회를 위해 활약하는 고령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리는 사회와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2002년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제기하고 지난해(2017년) OEWG에서도 강조했듯이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인권문화의 기반 다지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OEWG에서도 논의한 ‘고령자 인권조약’ 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에서 제3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2차 세계회의에서 합의한 정치선언과 행동계획에서는 고령자의 경험은 배려 넘치는 사회를 구축하는 재산이고 고령자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역할뿐 아니라 재해와 같은 긴급 사태에서 부흥과 재건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에 힘쓴 일본에서도 실감한 점인데, 3년 전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는 사회의 방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고령자 인권조약’을 제정하는 데에 유엔원칙을 바탕으로 권리보호를 확립하고 아울러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 일컫는 ‘고령자가 친숙한 지역에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입각한 규정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 ‘다보’라는 명칭에 담긴 마음

우리 SGI도 신앙활동의 근간인 ‘체험담운동’을 통해 온갖 어려움과 과제를 극복한 인생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고령자가 몸소 체험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불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기 3년 전인 1988년, 창가학회에서 활동하는 고령자 그룹에 ‘다보회(“ ㉠, )’라는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다보’라는 명칭은 법화경에서 석존이 설한 ‘만인존엄’ 사상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장한 다보여래에서 따온 말입니다. 법화경에는 세계의 보물을 모은 듯한 보탑이 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보탑 안에서 나타난 부처가 바로 다보여래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담아 신앙과 인생에서 연륜을 쌓은 소중한 동지 그룹에 ‘다보회’라는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다보회 외에 보수회(㉠㉠, )와 금보회(- ㉠, )를 결성하고 독일SGI는 ‘금추회(- ㉠, )’를, 호주SGI는 ‘다이아몬드그룹’ 등을 결성했는데 고령자 동지들은 신앙과 사회적인 면에서 ‘보배로운 존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생생한 신앙을 이야기한 사람도, 전쟁체험과 피폭증언 등을 통해 SGI의 ‘평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지역의 역사나 사람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재해를 이겨내고 부흥할 수 있도록’ 격려활동을 지원한 사람도 고령자 동지였습니다.

앞으로도 SGI는 체험담운동을 비롯해 전쟁과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는 활동에 힘쓰면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FBO)’와 협력하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고령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 일본과 중국 지자체가 연계해 지구온난화 대책 강구

### 많은 도시가 파리협정을 지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SDGs는 빈곤을 비롯해 기아, 교육 등 17개 목표를 내걸었는데 그중에 최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이끄는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2017년) 11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협정에서 유일한 미참가국인 시리아가 비준했

습니다.

탈퇴 의향을 밝힌 미국의 동향이 남은 과제지만 이로써 세계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소멸에 함께 힘쓰는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최근 각지에서 잇따라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상 어디에도 그 위협과 무관한 곳은 없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해를 입거나 해수면이 상승해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기후변동으로 인한 난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10억명이 이주해야 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놓인 사람들의 생활과 존엄을 보호하는 생명선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발효한 지 4년 안(2020년 11월까지)에는 어느 나라도 탈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미국이 파리협정 체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온난화 방지는 물론 난제이지만 저는 각국의 지자체가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협의회는 ‘각 도시의 전력을 2035년까지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의결했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는 2030년 이후부터 전기자동차만 시내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이 2040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지난해(2017년) 6월에는 세계 140곳에 이르는 대도시 시장이 모인 총회에서 국제적인 정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솔선해서 파리협정을 실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몬트리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공통의 위기이지만 국익과 부딪히는 과제에 많은 지자체가 ‘파리협정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끼리 경험을 공유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유럽에서는 독일이 주도해 기후보전을 주제로 도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동북아시아도 이와 같이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이 연계해 ‘기후보전을 위한 중일 환경지자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창합니다.

일본은 미래환경도시와 환경모델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온난화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도 태양열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등 많은 지역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먼저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일본과 중국의 지자체가 유엔이 3년 전에 계획한 기후중립 네트워크<sup>5</sup>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도쿄와 베이징, 고베와 텐진, 기타큐슈와 다렌의 지자체가 환경분야에서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지자체가 경험을 공유하거나 기술을 협력하고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도 지자체 협력의 연대를 넓히면 어떨까요.

## 대학 제휴나 청년교류를 확대

바야흐로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연간 약 900만명에 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도 363곳을 웃돕니다.

저는 50년 전인 1968년 9월 중일국교정상화를 제언했습니다. 당시는 무역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라 중일우호를 입에 올리지만 해도 격렬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격세지감입니다.

저는 대학생 1만 수천 명이 모인 총회에서 힘주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교정상화를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복잡하고 어려워 중일양국의 상호이해와 깊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공통된 염원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은 국제사회에서 이전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면 안 됩니다. 국제적인 넓은 시야로 평화를 위해, 번영을 위해, 문화 발전과 진보를 위해 솔선해서 공헌해야 새로운 세기의 가치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0년 동안 일본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무역국이 일본입니다.

또 일본의 대학과 교류하는 가장 큰 제휴처도 바로 중국의 대학입니다.

---

### <sup>5</sup> 기후중립 네트워크

유엔이 2015년 9월에 시작한 활동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균형을 맞추는 ‘기후중립’을 위해 구축했다. 각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8월, 노르웨이 아렌달시가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해 기후중립 도시 실현을 약속했다..

제가 창립한 소카대학교는 국교정상화를 이룬 뒤인 1975년, 중국에서 온 국비유학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일본의 대학인데 현재 양국이 맺은 대학 교류협정은 4400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1979년부터는 청년친선교류사업을 시작해 젊은 세대가 우호를 깊이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창가학회도 1979년에 청년부로 구성한 중국 방문단을 파견한 이후 청년 교류가 이어지고 1985년에는 중화전국청년연합회(전청련)와 의정서를 맺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17년) 11월에도 청년부 교류단이 중국을 방문해 우정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40주년을 맞습니다.

이 가절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쌓은 ‘양국의 관계를 깊이 다지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구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을 위한 행동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을 크게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는 모두 SDGs의 중점 과제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정열과 창조력을 최대 원동력으로 삼아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사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여성 임파워먼트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촉진

### 문제해결에는 양성평등이 불가결

끝으로 SDGs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제안입니다.

이 주제는 SDGs의 목표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목표를 크게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SDGs의 기축’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이 과제를 실행하는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음람보 응쿠카 사무총장은 지난해(2017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여성과 평화·안전보장’을 둘러싼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성과 평화·안전보장’ 의제는 국제적인 정책결정에서 그 발자취를 계속 넓혀 가야흐로 지구적 문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핵무기금지조약 전문도 양성평등을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핵군축에 관여하는 여성의 지원과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325호’를 계기로 분쟁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가 확대되었는데, 각국 안전보장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군축 분야에도 그 중요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대는 평화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협정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서는 평소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힘쓰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회의 회복탄력성(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강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2017년) 11월에 독일에서 개최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양성평등 방안’을 정했듯이 온난화 방지 면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변혁의 파동을 모든 분야로 넓히기 위해 유엔이 ‘여성 임파워먼트 국제 10년’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는 2020년부터 여성 임파워먼트 국제 10년’을 시작해 SDGs의 목표 달성 기간인 2030년을 향해 여성 임파워먼트 추진과 더불어 SDGs 모든 목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 임파워먼트는 ‘가능하면 고려하겠다’는 선택사항이 되면 안 됩니다. 과제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엔 여성기구가 요르단 난민캠프에서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의류 수선을 시작한 시리아 난민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력함이 줄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내발적인 힘을 개화한 것 같습니다.”

또 탄자니아 난민캠프에서 도망친 한 부룬디 여성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난민캠프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몹시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불안이 줄어들어 언젠가 부룬디로 돌아가 제빵 기술로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여성 임파워먼트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갈 희망’을 되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계를!

우리 SGI도 ‘만인존엄’이라는 불법사상을 바탕으로 여성 임파워먼트를 넓히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SGI 대표가 유엔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또 2011년부터는 다른 단체와 협력해 공식 관련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에 맞추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앙과 문화의 역할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비형식 교육을 주제로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2017년) 3월에 개최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양성평등과 종교에 관한 세계적인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그 목적은 각자 신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공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흐름을 만들어 지역을 비롯해 국가나 국제적인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률정비 등에 관한 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SGI도 이 플랫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FBO와 힘을 합쳐 어려움에 맞닥뜨린 여성들에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리아드네의 실”<sup>6</sup>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여성 임파워먼트 국제 10년’을 제정하기 위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DGs가 내거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비전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권과 존엄을 보장받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도전 속에 힘차게 약동할 것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 도전을 전망할 때 일찍이 로자 파크스 여사가 자신의 좌우명이라며 소개한 말이 떠오릅니다.

파크스 여사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인간이 괴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다’는 말입니다.

파크스 여사의 어머니도 차별과 계속 싸운 여성입니다. 이 절실한 마음이 바로 양성평등을 기축으로 SDGs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공유해야 할 정신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SGI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을 기반으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의 연대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

#### <sup>6</sup> 아리아드네의 실

그리스신화에서 크레타섬의 아리아드네 공주가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 미궁에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미궁 입구와 연결된 실을 건네 탈출을 도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인다.

## 참고문헌

1.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권》, 제삼문명사
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삼문명사
3.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0권》, 제삼문명사
4.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세이쿄신문사
5.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
6.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세이쿄신문사
7. 《나 자신과의 대화》, 넬슨 만델라 저, 오사다 마사코 옮김, 아카시서점
8.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상)》, 넬슨 만델라 저, 아가리에 가즈키 옮김, NHK출판
9.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하)》, 넬슨 만델라 저, 아가리에 가즈키 옮김, NHK출판
10. 《커넥토그래피 혁명(상)》, 파라그 카나 저, 아마초 지즈코/ 기무라 다카코 옮김, 하라서점
11. 《붓다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12.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저, 이노구치 고지 옮김, 하야카와서방
13. 《희망의 교육 평화의 대행진》, 제삼문명사
14. 《마틴 루터 킹 자서전》, 마틴 루터 킹 저, 클레이본 카슨 편집, 가지와라 히사시 옮김,  
일본기독교단출판국
15. 《과거와 미래 사이》, 한나 아렌트 저, 히키타 다카야/ 사이토 준이치 옮김, 미스즈서방
16. ARTE FRANCE 외 제작 ‘호루쇼프 미국에 가다’ NHK BS1, 2017년 10월 18일 방영
17. 《데드핸드》, 데이비드 E. 호프만 저, 라가 히데아키 옮김, 백수사
18. 《지구혁명을 향한 도전》, 우시오출판사
19. 〈아사히신문〉 2013년 7월 10일자
20. 〈주코쿠신문〉 2017년 11월 25일자
21. 유엔 난민기구 일본대표부 홈페이지

22. 유엔 여성기구 일본사무소 홈페이지
23. 유엔 홍보센터 홈페이지
24. NHK 홈페이지
25. IDN-InDepthNews 2017년 1월 23일 송신